

歲時歌謠의 지향성과 농경문화적 의미*

김 월 덕(전북대)**

〈목 차〉

1. 머리말
2. 세시가요의 농경문화적 기반
3. 기록 세시가요의 중농적 이념 지향성
4. 구전 세시가요의 농경적 관습 지향성
5. 농경문화의 시각에서 본 세시가요의 의미

1. 머리말

형식적 측면에서 작품이 열두 달로 나뉘어 구성된 노래들은 민요, 시조, 가사, 잡가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노래들은 달거리, 월령체, 월령가, 세시가요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고, 관점에 따라 분류에 대한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月令 형식으로 된 節日 위주의 노래들을 포괄적으로 ‘세시가요’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¹⁾ 내용과 주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3).

**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1) 박준규는 세시가요를 시조체, 가사체, 민요체로 구분하고, 농가의 세시풍속과 農務행사를 노래한 가사에서부터 세시절일의 정감을 노래한 달거리 민요까지를 포괄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고 표현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박준규, 「韓國 歲時歌謠의 研究」, 전북대 박사논문, 1983.

표현, 작가 등의 측면에서 ‘달거리’와 ‘월령체’로 구분하고 이 두 양식은 열두 달이라는 형식만 공통적일 뿐 근본적으로는 다른 계통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²⁾ 이러한 노래들은 공통적으로 ‘열두 달’을 구성의 기본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달(月)’을 대표 명칭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달’을 중심으로 季節, 節氣, 節日 등의 歲時 마디가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명칭에서 ‘세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시 개념이 작품의 중요 모티브가 된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는 열두 달을 기본틀로 삼고 세시를 소재로 하는 이런 종류의 노래들을 ‘세시가요’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시가요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형식의 구조적 특징, 계통, 주제 등이었다. 세시의 형성과 계승이 농경문화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세시가요의 창작과 전승도 근본적으로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두 달의 구성을 가진 노래들 중에서도 특히 농경문화와 관련되는 세시가요를 대상으로, 작자층의 의식적 지향성과 농경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시는 전통사회에서 시간관념을 형성하는 기본바탕이자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를 중시하는 농사의 특성상 농경문화에서 세시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 세시는 세시가요의 형식적 틀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작자층의 의식적 지향성과 사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시가요의 작자층은 개인적 성격의 지식인층과 집단적 성격의 민중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³⁾ 작자층의 성격에 따라 세시를 강조하는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드러난 사유와 의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식인 작자층의 지향성이 국가 운영의 중농적 이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면,

또한 장정룡은 한국과 중국 세시풍속 및 세시가요를 분석하면서 세시가요를 ‘세시풍속과 관련된 歌謠群’으로 규정하고, 한국 세시가요를 農家月令歌系, 달거리戀慕謠系, 風俗歌謠系로 나누었다.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2) 임기중은 ‘달거리’ 계통의 시가는 정월부터 선달까지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되 相思의 정이나 유락적 내용을 노래한다면, ‘월령체’ 계통 시가는 매월의 政습이나 의식, 농가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다는 점을 차이로 들며, 이 둘을 다른 계통으로 보고 있다. 임기중, 「달거리와 月令體歌의 장르 劃定에 대한 異議」,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7.

3) 두 계층 외에 직업적인 전문소리꾼 집단이 있다. 이들은 지식인층과 민중층의 노래문화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두 계층의 문화를 매개한다. 여기서는 농경문화적 관점을 취하므로 농경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약한 이들의 존재는 다루지 않는다.

민중층의 지향성은 농경적 삶의 현장에서 생성된 주술적 기원과 놀이 욕구 등 농경적 관습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작자계층의 지향성과 사유방식은 각각 기록과 구전을 통해 표현되며, 기록문화와 구전문화의 속성을 반영한다. 기록과 구전 중 어느 것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따라 세시가요는 서로 다른 의식적 지향성을 보이는 것이다.⁴⁾

본 고에서는 기록 세시가요로 한글가사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 두 편을 대상으로 삼고, 구전 세시가요로서 월령체 형식의 구전 민요를 대상으로 삼는다. 기록 세시가요에는 한문과 국문으로 된 작품들이 있는데,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독자층을 의식한 것은 국문으로 쓰인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문 세시가요를 대상으로 삼는다. 세시가요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구전 민요이다. 이 중에서 농경문화와 관련되는 작품들을 구전 세시가요의 사례로 삼기로 한다.

2. 세시가요의 농경문화적 기반

세시가요와 관련하여 세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형식적 측면에서 ‘달(月)’을 기준으로 하여 열두 달이 작품 구성의 형식적 틀을 부여한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춘하추동 사계·절기·절일에 따르는 세시풍속이 작품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 셋째, 현장의 측면에서 구전 세시가요는 선 달이나 정월의 세시의례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가창되는 경우가 많다. 세 가지 차원은 모두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세시가요의 창작과 전승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시가요의 열두 달 구성 형식과 농경문화의 관련이다. 세시가요는 일년 열두 달이라는 자연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달은 농업의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성상 열두 달로 이루어진 세시가요의 월령체 형식은 농경문화의 순환론적 시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민족에게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세시행사는 생활관습과 삶의 의식을 형성

4) 기록된 작품도 구비성을 가질 수 있으며, 구전 문학도 일단 기록되면 기록성을 가질 수 있다. 가사작품은 필사나 인쇄 등으로 기록되었어도 구비성을 가지며, 고려가요는 본래 구전되던 노래이지만 기록으로 전해져 기록성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하는 바탕이다.

세시가요의 열두 달에 따른 구성에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해서 파종, 제초, 수확, 저장하여 마치고까지 일련의 농사일과 세시행사가 때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정월과 2월은 농사를 시작하는 달, 3월·4월·5월은 한창 농사일을 진행하는 달, 6월과 7월은 고된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쉬는 달, 8월과 9월은 추수를 하는 달, 10월과 11월은 추수 이후 놀이와 축제를 하는 달, 12월은 농한기를 보내며 이듬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달이다. 그리고 각 달에는 때에 맞는 세시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각 달에는 ‘때(時)’에 걸맞은 일이 있다고 여겨져서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를 꺼렸다.⁵⁾ 이처럼 때에 맞는 다거나 맞지 않는 일이 있다는 믿음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야 하는 농경적 삶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유이다.

둘째, 세시가요의 핵심적 내용과 농경문화의 관련성이다. 세시가요의 핵심 내용은 각 세시별 농사일과 세시행사이다. 1년이라는 시간의 분절은 자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절기 개념을 발달시킨 중국에서 자연의 시간에 대한 분절은 점차 세분화되면서 진행되어 왔다.⁶⁾ 춘하추동 四時를 孟仲季로 나누어 열두 달이라는 시간인식이 생기고, 각 달에 2절기씩 24절기로 나누고, 각 절기에는 각각 3候가 있어 72후가 생긴다. 시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節氣’는 농사의 기준이 되는데, 적기에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농사의 성과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은 농가에서 할 일을 월별로 나누어 교훈을 섞어가며 전개하고 여기에 농촌풍속과 권농을 표현한다. 정월부터 선달까지 노동에 대한 의무를 중심으로 각 달에 때를 놓치지 않고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작품은 조선후기 농속을

5) 열두 달 중에서 달에 얽힌 금기어가 가장 많은 달은 정월인데, 정월이 많은 금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 해의 시작으로서 갖는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농사와 관련하여 정월 금기와 속신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머리 빗으면 밭에 새삼이 낀다.” “선달 그믐날 찬밥 남기면 논이 묵는다.” “정월 보름 안에 빨래를 하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 “정월 열 나흘날 아침에 남자가 키를 보면 여름 농사 때 벼섬을 터뜨린다.” “정월 열나흘날에 오곡밥을 먹지 않으면 농사철 일꾼이 모이지 않는다.” 허재영,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역락, 2000, 163-168쪽.

6) 세시의 시간관념의 변천에 관해서는 샤오팡 지음, 김지연·박미경·전인경 역,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 국립민속박물관, 2006, 20-32쪽 참조.

이해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⁷⁾

셋째, 현장의 측면에서 가창의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기록 세시가요와 달리, 구전 세시가요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경사회의 세시의례에서 가창되는 경우가 많다. 구전 세시가요는 가창을 전제하므로 세시의례가 가창의 시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구전 세시가요 중 의식요는 선달과 정월에 공동체 제의와 놀이의 시공간에서 가창됨으로써 풍농과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목적을 수행한다. 예컨대, 지신밟기나 고사 액막이 등의 풍속은 민중층이 공동으로 신을 즐겁게 하고 인간과 신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마당으로, 이 때 가창되는 세시가요는 즐기기 위한 노래로서의 성격도 물론 어느 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액초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의 노래이다. 신성성을 확보한 상징적 시공간 속에서 노래의 주술적 기능이 구현된다.

기록 세시가요와 구전 세시가요는 열두 달을 작품 구성의 기본틀로 삼음으로써 공통적으로 농경의 순환적 시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달’은 농사주기의 중요한 시간적 지표이기도 하며, 세시가요의 순환적 인식을 형성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록과 구전 세시가요 사이에는 세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기록 세시가요는 세시 가운데 절기와 절후를 앞세우고, 구전 세시가요는 명절로 일컬어지는 절일을 앞세운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자층의 체험과 사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두 종류의 세시가요가 지향하는 바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3. 기록 세시가요의 중농적 이념 지향성

조선은 이념적으로 유교사상을, 경제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이다. 건국부터 중농적 유교이념을 국가의 통치 기반으로 삼았다. 조선후기에는 농법 개혁을 추구하면서 중국 농서를 수집하고 보급하여 중국의 선진농법과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춰 체계화하는 정책을 폈다. 농민들이 농사일

7) 예컨대, 세시가요를 월령적 농서로 파악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구자옥·김영진, 『우리나라 농사일(農務, 農耕) 문화의 성립·변천 및 사례 - 농사일의 전개』, 『농업사연구』 제7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8, 90-102쪽.

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계절과 절기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지식인층에서는 계절별 또는 월별로 농사의 할 일을 정리하고 단순화하여 농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썼다. 이윤곡의 「田園四時歌」, 고상안의 「農家月令」, 정철의 「勸民歌」, 김형수의 「月餘農歌」,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박세당의 『穡經』 「田家月令」 등이 모두 그러한 예들이다.⁸⁾ 중농적 실학자들이 권농을 주제로 하여 쓴 이러한 작품들의 창작 배경과 동기가 국가의 중농주의적 이념 실현에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⁹⁾

이런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선의 중농적 유교이념의 확고한 권위는 대개 중국의 유교적 경전을 통해서 획득되었다. 그 대표적인 문헌이 『詩經』과 『禮記』이다. 『詩經』 「豳風 七月」과 『禮記』 「月令」은 조선왕조 중농적 유교이념의 문헌적 기반이었다.¹⁰⁾ 「빈풍 칠월」은 농사에 관한 월령가 형식이고,¹¹⁾ 「월령」은 일년 열두 달의 政令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 지식인들은 유교 경전에 근거한 중농적 통치이념을 문학작품을 통해 규범화하고 전파시켰다. 따라서 권농 가사작품들은 개인의 순수한 문예창작이라기보다 중농주의라는 국가 통치이념의 문학적 재생산인 셈이다.

「빈풍 칠월」이나 「월령」이 취하고 있는 ‘월령’의 가장 오래된 형식은 「夏小正」이다. 「하소정」은 하나라 달력 12개월의 순서에 따라 매달의 星象과 氣候에 따른 농업의 변화, 생업활동과 기후관계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하소정」의 월령 형식은 『시경』 「빈풍 칠월」, 『예기』 「월령」으로 가면서 점차 政令을 포함하게 된다.¹²⁾ 「하소정」, 「빈풍 칠월」, 「월령」의 영향은 서계 박세당의 「田家月令」, 태촌 고상안의 「農家月令」 등 한문가사에서도 드러난다.¹³⁾ 이어서 나

8) 구자옥·김영진, 앞의 글, 91쪽.

9) 이승원은 이러한 작품들을 문학적 창작물로 인정하기보다 교육적 목적을 앞세워 “농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교도용 제작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승원, 「<농가월령가>에 나타난 자연·인간·사회」, 『국어국문학』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130쪽. 즉 이들 작품의 창작 동기는 개인의 순수한 詩心이라기보다 중농적 유교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10) 『조선왕조실록』에서 「빈풍 칠월」과 「월령」에 대한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빈풍 칠월」과 「월령」에 대한 지식은 지배 지식인층 사이에서 교양과 같은 수준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11) 「빈풍」은 『시경』 「국풍」의 한 편으로, 주공이 지은 시와 주공을 위하여 지은 시를 아울러 가리킨다. 주공이 성왕을 도와 칠월시를 지어, 부지런히 힘쓸 일을 말하고, 장님으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이를 외게 하여 백성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12) 사오광, 앞의 책, 20-23쪽.

13) 월령 사상의 수용과 형성·정착 과정에 대하여 한정수, 『한국 중세 유교정치사상과 농업』,

온 운포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와 나수 이기원의 「농가월령」 등 국문 세시가요는 중국의 경전과 한문 월령체 가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운포의 「농가월령가」와 나수의 「농가월령」은 『시경』 「빈풍 칠월」과 『예기』 「월령」을 바탕으로 하고, 태촌의 「農家月令」, 서계의 「田家月令」, 「農家十二月俗詩」를 참고로 하여 엮어졌다. 작가들의 창작 동기는 서문과 작품 말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빈풍 칠월」과 「월령」의 뜻을 계승하여 중농적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천만가지 생각마쇼 네말을 고지듯쇼
하소정 빈풍시를 성인이 지어너시니
 지극흔 뜻 바다서 디강을 기록하니
 이 글속을 자시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 「농가월령기」 말미¹⁴⁾

이 칙을(은) 전혀 시골벽성 농스짓고
 질습흔난 남녀간 일을 위하여 지은지라 (...)
 상말과 속담으로 가스를 지어
 농부와 직녀의 슈고흔난 일을 위로코자 햐야
 이 칙을 지어시나 시전 빈풍칠월장을 의지햐여
 열두달의 농무선후와 죠만을 쓰라
 터만 실시흔 폐단이 업게햐여시나
 다만 문즈출쳐가 집고 쥬펴
 무식흔 농부와 무미흔 부여가 아라보고
 올케 듯지 못홀 듯햐여 쥬니고 식어 (...)
 이십스후 츠서 잇고 삼빅육순 정밀햐다

— 「農歌月令」 서두¹⁵⁾

혜안, 2007, 113-143쪽. 저자는 『禮記』로 상징되는 유교정치이념의 실현을 제시한 고려왕조에서부터 조선까지 월령의 사회적 적용에 대해서 고찰한다. 고려 초에는 유교이념의 이해 선상에서 군주의 수덕을 포함하면서 시령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사력으로서 기능, 군주 및 지방관의 정령, 시후의 변화 등을 갖춘 경전에 대해 주목했다고 한다.

- 14) 「農家月令歌」의 작자에 대해서는 광해군 때 고상안이라는 설과 철종 때의 정학유라는 설이 있다.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학주해연구』 5, 아세아문화사, 2005. 125-134쪽.
 15) 나수 이기원(1809-1890)의 「農家月令」 서문에서는 조선후기 공주지방 농촌의 모습을 엿볼

「농가월령」 서두에서는 빈풍칠월장의 뜻을 전하려 하나 그 문자출처가 깊어 무식한 농부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훗사람이 자신이 뜻한 바를 쉽게 풀이하면 유익할 것이라 한다. 중농적 유교 통치이념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작품은 「하소정」과 「빈풍 칠월」의 문헌적 권위에 의지하고 있다. 『시경』 「빈풍 칠월」은 周公의 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전되어오던 노래가 글로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비전승되던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어 문헌으로 정착되면 새로운 권위를 얻게 된다. 「빈풍 칠월」이 그런 경우다.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이 『시경』 「빈풍 칠월」과 『예기』 「월령」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구절이 인용되었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다.¹⁶⁾ 중국 문헌의 영향을 받았지만 내용상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가의 세시풍속을 함께 노래한 것은 시가의 미학과 창작성을 살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¹⁷⁾ 내용적 측면에서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은 『예기』 「월령」과 『시경』 「빈풍 칠월」의 영향을 받았지만, 작품의 순환적 구조나 월령적 사유방식은 『예기』 「월령」의 영향이 더 크고 직접적이다. 특히 한문가사인 고상안의 「農家月令」과 박세당의 「田家月令」 등에 미친 영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예기』 「월령」의 짜임새는 매달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 달의 천문으로 시작하여, 절기에 따른 천자의 의식주 관련 내용 및 행위, 구체적 법령, 때에 맞지 않는 시령을 행했을 때 따르는 재이현상 순으로 전개된다. 천자의 핵심적 행위로 제사, 전렵, 치산, 치수, 치전, 권농, 목우 등 정령의 수칙이 제시되어 있다. 「월령」에서는 천지자연의 변화를 가장 앞에 배치하고, 천문에 따른 절기와 절후를 제시한 후, 그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 천자의 의무를 명시한다. 「농가월령가」는 매 월 그 달의 명칭과 별칭, 24절기 중 두 절기로 시작하여 전개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 「농가월령」은 천지자연의

수 있다. 임기중 편저, 같은 책, 103-115쪽.

16) 박준규는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에서 「빈풍 칠월」의 영향을 받은 구절을 인용된 부분, 유사한 부분, 영향을 받은 부분 등으로 나누어 대비하고 일목요연한 표로 제시하였다. 절기의 중국 고사 기원, 인명, 지명 등에서 중국 문헌의 영향이 크다. 박준규, 앞의 논문, 98-104쪽. 장정룡도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을 『시경』 「빈풍 칠월」과 대비하였다. 장정룡, 앞의 책, 68-73쪽.

17) 장정룡, 위의 책, 248-249쪽.

변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달·절기·절후가 혼재되어 있다. 24절기 대신 12월로 나누어 월령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 내용 전개에서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월령」에 견주어본다면 「농가월령」보다 「농가월령가」가 「월령」의 체계를 더 따르고 있다.

「농가월령가」序歌에서는 천지질서와 운행원리, 태음력에 따른 기후 및 천문의 이치와 역법의 사용 내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정월부터 선달까지 매달의 첫머리에서 24절기 중 두 절기를 제시하고 각 달의 계절과 자연 변화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권농과 농민의 의무, 각 달의 세시풍속이 순차적 전개가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매 달은 24절기로 시작하여 자연의 변화를 제시하며 節日보다 節氣를 우선시한다. 24절기는 농사일에 필요한 자연 변화의 지표이며, 농사의 주요한 일들의 기준이 되는 農事曆이다. 농민들에게 24절기는 농사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업상식이다.¹⁸⁾ 「농가월령가」에서 24절기 중심의 농사력을 강조한 것은 농사에 있어서 失時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농가월령가」에서는 농사와 긴밀한 세시로서 ‘절기’가 우선 제시된 후, 절기에 따른 힘든 농사일, 그리고 명절의 세시풍속이나 속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¹⁹⁾ 내용의 비중으로 보면, 임금의 은혜 아래 사는 농민의 할 일과 농가의 할 일이나 권농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명절의 세시풍속이다. 그런데 작자는 일부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아예 절제를 권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²⁰⁾ “팔일의 현등흐른 산촌의 不緊으나 늦희씩콩씨개는 제법의 別味로”(4월령), “鄕村의 으녀들아 추천은 말너니와 청홍상 창포 빈혀 佳節을 허송마라”(5월령) 등이 그 예이다. 노동과 놀이가 적절히 나열되어 조화된 듯 보이지만 초점

18) 24절기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조선 초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시대 이전에는 주로 계절의 변화나 생활의 금기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24절기가 백성들의 생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축임을 인식하고 이를 변증하였으며, 역법과 월령의 생성원리가 모두 지배자에 의해 비롯된 점을 인정하였다. 주영하, 「19세기 세시 풍속에 대한 지식인의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2005, 132-137쪽.

19) 이승원은 인간의 중요한 두 측면인 노동과 유희를 반복 서술함으로써 농사가 자연 질서와 조화하는 일이듯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노동과 유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여 자연 질서에 합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원, 앞의 글, 133-135쪽.

20) 김석희,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月餘農歌)〉의 대비 고찰」, 『국어국문학』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114-115쪽.

은 역시 권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어와 우리聖上 愛民重農하오 시니 懇惻하신 勸農綸音²¹⁾ 坊曲의 頒布하니 畷호다 農夫들이, “네몸 利害 고 샴호고 聖意를 어긋소나”(정월령), “天心을 생각하니 은혜도 망극하다”(5월령), “天恩도 그지 없고 國恩도 망극하다”(10월령)라고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이므로 몸을 아끼지 말고 임금의 뜻에 보답하라는 왕권중심적 인식을 보인다.

임금이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왕권중심적 인식의 뿌리 역시 「월령」에서 찾을 수 있다. 「월령」은 천문자연의 이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天時와 天道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하늘의 이치를 파악함으로써 人事를 살피는 것이 곧 천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군주는 天時를 잘 이해하고 그 명을 수행해야 하며,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원리로서 政令을 발표하여 하늘의 뜻을 일반 백성에서 전해주고 時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군주의 위상을 강화한다. 「월령」에서 강조하는 천시의 파악은 국가의 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직결되고, 시령에 따르는 통치는 곧 중농이념의 확립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농경사회에서 천체현상을 관찰하여 농경생활에 필요한 절기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관상수시(觀象授時)’는 군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천문을 살펴서 때를 맞추는 일은 국정의 기초다. 군주가 중농적 이념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중농적 유학자인 작자들의 관점에서 농사는 천문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며, 군주가 덕을 펼칠 수 있는 바탕이다. 「월령」에는 군주 중심의 지배체제와 유교적 중농이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²²⁾

천체의 주기적 현상을 토대로 세시를 정하는 역법은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 한편, 역법은 정치성을 띠고 있어서 한 왕조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²³⁾ 역법은 왕의 지배가 천명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왕은 하늘의 이

21) 윤음은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로서 오늘날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천자의 정령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해 농업을 권장하는 애민근농(愛民勤農)의 정신을 보이는 것이다.

22) 한정수, 앞의 책, 119-122쪽.

23) 주영하, 위의 글, 132-133쪽.

치를 이해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행위에는 하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 「월령」에서 천문의 도에 따라 행위하는 주체가 중국 천자라면, 「농가월령가」에서는 조선 임금이다.²⁴⁾ 그리고 지배층은 임금의 운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왕권중심의 인식을 보여주고, 절기와 같은 農時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교적 중농이념을 확산시킨다. 天時를 파악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고, 이러한 역할이 중농이념의 실천과 연결된다는 점은 「월령」과 상통한다.

결국,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이 『예기』 「월령」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농경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들 작품은 天時와 人事의 조화를 추구하는 「월령」의 사유방식과 열두 달의 순환적 구조를 이어받아, 조선의 유교적 중농이념 위에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가월령가」와 「농가월령」은 『예기』 「월령」과 『시경』 「빈풍 칠월」과 같은 중국의 유교경전, 작자들이 수집하여 알고 있는 농사 정보, 작자들 자신의 농사 체험을 적절히 배합하여 구성되었다. 특히 「농가월령가」는 매달 ‘절기’ 중심의 농사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천문자연의 이해와 失時의 경계로 이어지게 되고, 유교적 중농이념과 권농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규칙성을 보여준다.²⁵⁾ 요컨대 「농가월령가」는 「월령」의 사유방식과 순환적 구조를 따르고 그 문헌적 권위를 빌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중농이념을 문학적으로 실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 구전 세시가요의 농경적 관습 지향성

열두 달과 관련한 세시가요 가운데 구전 민요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24) 예컨대, 『예기』 「월령」에서 천자가 친솔궁경과 영춘동교, 영추서교 등을 행한 것처럼 「농가월령가」에서는 ‘우리 성상’이 그 행위의 주체로 등장한다. 친솔궁경은 친히 백관들을 거느리고 나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고, 영춘동교는 도성의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25) 박준규는 “정령에 대한 十二月記라 하지만 이 행사기의 빠대는 歲時의 節候 구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월령」 내용 중 72후에 대한 歲時詞는 政令이 아니라고 본다. 춘하추동 사시를 孟仲季로 나눈 열두 달과, 四時의 24절기를 각각 3후로 나눈 72후를 주축으로 하여, 이렇게 나누어진 세시에 따라 일어나는 일과 느낌을 술회한 것이 十二月記이므로, 「월령」 내용을 전적으로 施令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박준규, 앞의 논문, 96-97쪽.

다. 각설이타령, 강강술래, 고사요(고사소리),²⁶⁾ 과부가, 그네요, 널뛰기요, 닝정굿, 노랫가락, 농부가, 단오요, 달거리요, 달풀이요, 땡기노래, 떡타령, 둥당애타령, 둥타령, 망개노래, 방아타령, 범벅타령, 베틀노래, 사친요, 서낭타령, 성주풀이요, 수심가, 액막이(액풀이), 연모요, 열두달 노래, 월령요, 이별요, 일년가, 장부가, 장타령, 제석굿, 죽은엄마, 중노래, 지신풀이, 창부타령, 청상요, 투전타령, 풍년가 등 예로 들 수 있는 노래만도 수없이 많다. 지역에 따라 노래명이나 기능은 달라도 내용이 비슷한 것들도 다수이다.²⁷⁾ 기록 세시가요에 견주어 이러한 노래들을 ‘구전 세시가요’라 부르기로 한다.

구전 세시가요가 세시와 관련되는 양상은 ‘현장’과 ‘소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현장’ 차원에서 구전 세시가요는 세시의식이나 세시놀이와 같은 세시풍속의 시공간에서 가창되는 노래이다. 세시풍속 가운데는 의식과 놀이로서 어느 한 가지의 성격이 분명한 경우도 있고, 의식과 놀이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초 액막이굿은 세시의식으로서 성격이 뚜렷한 경우이고, 강강술래나 줄다리기는 의식과 놀이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본 고에서는 열두 달을 기본틀로 구성한 노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초 액막이굿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²⁸⁾ 둘째, ‘소재’ 차원에서 구전 세시가요는 세시를 소재로 삼아 연모와 사친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언어유희 그 자체를 즐기는 노래이다.

기록 세시가요가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반면, 구전 세시가요는 가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창 현장이 의미 해석의 중요한 시공간 맥락을 제공한다. 특히 연중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세시의식의 현장은 구전 세시가요가 가창되는 핵심적 시공간이다. 농경문화에서 절일의 세시행사는 농경생활에 주기적인 삶의 리듬을 부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경생활 가운데 배치된 특정 세시의식은 노동으로부터 긴장을 이완시키고 해방과 휴식을 취하는 시

26) 호남지역 농악대 상좌가 정초 마당밭이에서 부르는 ‘고사소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풍부한 사설을 갖고 있다. 성주군에서 부르는 고사소리만 해도 ①산세풀이부터 세간풀이까지 노래되는 것, ②성주풀이와 달거리가 하나의 세트 구성되는 것, ③앞의 두 자료군이 결합되는 것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최자운, 『호남지역 농악대 고사소리의 기능과 유형』, 김익두 편, 『풍물굿 연구』, 지식산업사, 2009, 304-321쪽.

27) 박준규, 앞의 논문, 26-40쪽. ‘민요체 세시가요’로 분류한 노래들의 분류표를 참조.

28) ‘호미씻이 노래’나 ‘장원질 노래’ 등 열두 달의 구성을 취하지 않는 세시의식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박경수, 앞의 책, 107-109쪽.

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기록 세시가요가 세시 중에서 절기와 절후를 앞세우면서 각 달에 해야 하는 농사일을 열거하고 강조하는 반면, 구전 세시가요는 節日을 내세우고 농사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으며, 농경문화의 관습에 따라 각 달의 절일 풍속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구전 세시가요의 절일 중심의 시간관념은 기록 세시가요가 농사를 짓는 데 실질적인 시간적 지표로서 절기를 우선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세시의식과 놀이가 행해지는 세시 절일은 시공간의 신성성에 기대어 특정한 기원을 하거나, 농민들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휴식을 취하고 놀이를 즐기는 날이다. 구전 세시가요는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서 휴식과 놀이의 가치를 강조한다.

세시절일에 이루어지는 세시의식과 놀이는 농경생활의 생활관습과 연관되어 있고, 이 때 가창되는 구전 세시가요는 정치성이나 교술성과 무관하게 농경적 삶의 현장과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세시의식과 놀이에서 가창되는 구전 세시가요는 농경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술적 염원을 담거나 농경적 생활관습에서 형성된 보편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구전 세시가요는 구술문화의 전통 속에서 창조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구술문화 특유의 사고방식과 표현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가창자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정형구 사설이 있고, 그것들의 나열과 반복을 특징으로 한다.²⁹⁾

구전 세시가요 가운데 세시의식요는 제의관습의 현장에서 주술성을 표출하고, 세시유희요는 놀이관습의 소재로부터 유희성을 추구한다. 세시의식요와 세시유희요는 주술성과 표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창자들의 서로 다른 사유방식을 드러낸다. 세시의식요와 세시유희요는 가창의 시공간,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서로 구분되지만 사설의 실제 구성 방식을 보면 서로 비슷한 원리를 따른다. 세시의식요나 세시유희요는 공통적으로 열두 달의 節日詞가 맨 앞에 제시되는데, 제의관습의 ‘현장’에서 가창될 때는 절일사 뒤에 주술적 기원과 염원이 결합되고, 놀이의 시공간에서 세시유희요로 가창될 때는 유희적 사설이 결합된다.³⁰⁾ 이제 농경문화의 관습

29) 월터 J. 웅,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5-92쪽.

30) 박경수는 의식요와 유희요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건을 ‘福’과 ‘재미’로 파악하였다. 의식요를 “주술적 사설의 내용을 빌어 가창자가 신이나 신성의 세계에 인간존재의 생존을 위한 소망

이라는 시각에서 세시의식요와 세시유희요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4.1. 제의관습의 ‘현장’과 세시의식요의 주술성

세시의식요는 주로 선달그믐, 정초, 정월 대보름에 마을 공동체와 각 집안에서 행해지는 세시의식에서 가창된다. 액풀이요, 고사소리, 걸립고사, 고사덕담, 고사반, 성주풀이요 등이 그 예이다. 세시의식의 시공간은 일상적 시공간에서 신성한 제의적 시공간으로 탈일상화된다. 풍물패가 마당밧이나 지신밧기 또는 판굿을 하거나 정초에 각 집안에서 액막이굿이나 안택고사를 할 때 세시의식요가 가창되며,³¹⁾ 내용은 액막이 또는 일년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가이다. 세시의식요는 가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성과 사설의 길이가 기록 세시가요에 비해서 훨씬 짧고, 열두 달 관련 사설이 형식적인 대응구조를 이루고 있다.³²⁾

세시의식은 특정 세시명절에 자연의 변화에 따른 제앙을 물리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복을 불러들이는 주술적 행사이다. 세시의식요를 가창하는 사람은 대개 풍물패 상쇠이거나 무당과 같이 司祭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다. 세시의식요의 가창 시간인 정초는 각종 굿기가 수행되며 한 해의 시작이므로 앞으로 일년 동안 나쁜 일이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방·예축의 주술적 염원이 세시의식요에 반영되어 있다. 연말 정초의 세시의식은 예축과 접세의 농경의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세시의식요에 담긴 주술적 祈願은 풍농의례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을 소원하는 노래”라고 규정하고, 세시의식요·장래의식요·신앙의식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 유희요는 “재미와 흥을 추구하는 노래”라 하고, 세시유희요·경기유희요·조형유희요·풍소유희요·언어유희요로 분류하였다.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74-136쪽.

- 31) 정월 대보름에 하는 지신밧기는 문굿, 성주풀이, 액풀이(달풀이), 조왕풀이로 구성된다. 세시에 맞추어 가창된다는 점에서 지신밧기에서 가창되는 일련의 노래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세시가요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액풀이(달풀이)는 핵심 ‘소재’와 가창 ‘현장’이 모두 세시와 관련이 있어서 본 고에서 논의하는 세시가요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 32) 세시가요의 대응 구조에서 형태의 대응으로 (1) 시어의 대응, (2) 시구 및 시행의 대응, (3) 시연의 대응이 있고, 월령에 의한 연 대응, 세시절일을 축으로 한 연대응, 후렴 등 여음에 의한 연대응, 過月詞에 의한 연대응, 동일거구의 반복에 의한 연대응 등이 있다. 박준규, 앞의 논문, 134-149쪽.

일년도액이 두렵구나 일년도액을 풀어낼 제
 정칠월이면 이팔월 이팔월이면 삼구월 삼구월이면 사시월
 오동지 육선달 일년허구두 열두 달 한달허구두 서른날
 하루허구두 열두시 시시때때로 드는 액은
 정월달에 드는 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 / 액맥이 연으로 막어내고
 이월달에 드는 액은 이월이라 한식날 / 한식 차례로 막아내고
 삼월달에 드는 액은 삼월이라 삼진날 / 제비 새끼 명마구리 연자초리로 막아내고
 사월달에 드는 액은 사월이라 초파일날 / 부처님전에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오월달에 드는 액은 오월이라 단옷날 / 그넛줄에다 막아내고³³⁾
 -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한춘수(남·74세)

액막이는 대표적인 세시의식이다. 사설 내용을 보면 대개 특정 명절을 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매달의 액이나 살을 막고 풀거나 다가올 액을 막아내기, 그리고 그 달의 세시풍속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⁴⁾ 가창방법과 가창주체, 가창 시공간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세시의식요는 주술성을 획득한다.³⁵⁾ 구전 세시가요는 기록 세시가요와 달리 세시명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세시명절로 언급된 날들은 정월 보름, 이월 한식,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팔월 한가위, 구월 중구, 시월 천마일, 십일월 동지, 선달 그믐으로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액막이에서 액을 막아내는 날은 그 달의 특정한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세시절일로서, 농사 진행과정에서 명절은 노동을 쉬고 축제와 놀이가 행해지는 특별한 시간이다.

세시의식요로서 ‘액막이’는 가창의 시공간이 정초의 세시의식의 현장이면서, 세시 명절의 행사를 소재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가창자층의 생활과 밀접한 세시일을 노래의 소재로 삼아 그들의 기원을 드러낸다. 액막이의 첫 구절은 설날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물고, 정월 대보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름 명절을 중시하는 것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33) 『한국민요대전』(경기도 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5, 61쪽.

34) 액막이는 전승지역에 따라 사설의 다양한 변형이 있다고 한다. 고사소리의 지역적 특성에 대하여 최자운, 앞의 글, 2009.

35) ‘주술성’의 민속학적 이해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 임재해, 「곳의 주술성과 변형성」, 『비교민속학』제9집, 비교민속학회, 1992.

우리 나라 전통 세시풍속의 특징이다.³⁶⁾ 농경문화와 보름 명절의 상관관계는 만월의 주술적 상징성에 비추어 민속학 분야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액막이에서는 농경문화에서 보름과 풍농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월 보름을 가장 앞세우고 있다.

조선시대에 한식은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인식되면서 명절로서 위치가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월 한식은 태양력에 의한 속절로서, 청명과 하루 사이에 있고 주로 묘제 제사를 행한다. 농사가 청명을 전후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때는 놀이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대 중국에서 이때는 봄기운이 매우 왕성한 때여서 투계·추천·타구 등 집 밖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고려와 조선전기를 거칠 때까지도 조정에서는 가끔 잔치를 했다고 하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성묘 한 가지 일만 남았다고 한다.³⁷⁾ 일부 사설에서는 한식 대신 농경생활에서 더 의미가 있는 영등날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영등날은 강우신인 영등신이 내려와 우순풍조와 풍년을 가져다준다는 날로,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적 기원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사일로 보면 영등날이 더욱 중요한 명절이고, 노랫말에서 한식과 영등날의 선택은 특정지역이나 개별 가창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또 지역과 가창자에 따라서 세시절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칠월칠석과 칠월백중이 있다.

농가에서 세시절일은 조상제사, 공동체와 개인 집안의 풍년 기원, 집단 의식과 놀이 등이 행해지는 날이다. 세시가요에서 언급되는 세시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쌓인 노동의 긴장을 해소하고 휴식을 취하는 날이자, 농경생활에 주기적인 삶의 리듬을 부여하는 날이다.

4.2. 놀이관습의 ‘소재’와 세시유희요의 놀이성

구전 세시가요 중에서 세시놀이와 관련된 노래들을 ‘세시유희요’로 칭할 수 있다. 세시유희요는 ‘세시’와 ‘유희’라는 두 차원이 결합된 노래인데, 세시가 가창의 시공간인 경우와 노래의 소재인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 예로 강강술래나 줄다리기와 같은 세시놀이에서 가창되는 세시유희요를 들 수

36) 장정룡, 앞의 책, 19-24쪽.

37) 최남선 지음, 최상진 해제, 『조선의 상식』, 두리미디어, 2007, 111-113쪽.

있고, 후자의 예로 화투노래나 투전노래와 같이 노래 자체가 언어유희적 성격을 띠는 세시유희요를 들 수 있다. 세시유희요는 노랫말이 구성되는 원리는 세시의식요와 공통적이지만 흥미의 속성이 더 부각되어 여가 놀이노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³⁸⁾

세시유희요의 전형적 형식은 허두사, 각 월령의 축이 되는 세시의 節日詞, 세시절일의 풍속 등으로 구성된다. 세시의 절일사 뒤에는 그 달의 명절이나 놀이 같은 세시풍속, 시절 음식이 결합되거나, 相思, 戀慕, 思親과 같은 개인의 감정표현 등이 결합된다.³⁹⁾ 세시 절일사 뒤에 결합되는 사설은 그리움과 같은 개인의 정서표현이나 언어유희 그 자체이다.

정월 십오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 풍류도 하려니와 부모봉양 늦어간다⁴⁰⁾

정월이라 대보름날 나무집의 소년들은 / 고꼭머리 높이 앓아 망월구경 하시는데
우리님 어데가고 망월뜯지 모르신가⁴¹⁾

정월이라 대보름날 답교가자는 명절인데 / 청춘남녀 짝을지어 양양삼삼이 다
나건만
우리님은 어디를 갔게 답교가자는 말이없소⁴²⁾

正月이라 望月날에 누와갓치 완월할고 / 이월이라 한식날에 누와함께 看山하리
삼월이라 삼진날에 답청할이 전혀업다 / 사월이라 팔일날에 관동하리 전해업다
오월이라 단오일에 씨름구경 놀과하리

위의 사례들은 한 해를 기준으로 정월부터 선달까지 열두 달을 기본 구성

38) 이창식은 현장에서 놀이적 성격을 중시하는 민요를 ‘가창유희요’로 분류하고 흥취를 동반한 유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창식,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44-49쪽.

39) 장정룡은 이러한 성격을 구분하여 風俗歌謠系와 달거리戀慕謠系로 명명하였다. 장정룡, 앞의 책, 99쪽.

40) 박준규, 앞의 논문, 116쪽.

41) 「달풀이요」 중 정월령. 임동권, 『한국민요집』4권, 집문당, 1993, 319쪽.

42) 「달거리요」, 『구비문학대계』 8-1, 경남 거제군편 장승포읍, 469쪽. 12연 중 정월령, 1980.

으로 하고, 각 달마다 들어있는 명절에 부모나 남편 등 가신님을 그린다는 월령체 노래이다. 조선 말기에 서울 변두리 소리꾼들에 의해 많이 불리며 발달한 12잡가 중 「달거리」와 흡사하다. 열두 달은 형식적 틀일 뿐, 뒤에 나오는 정서 표출이 중요한 내용이다. 월령체 형식을 취함으로써 일년 내내 그리움의 정서가 지속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자아의 정서표현적 속성이 부각되면 노래에 서정 민요로서 성격이 부여된다.⁴³⁾

정월이라 대보름날 액막이가 뺏단다 / 이월이라 한식날 춘추절이 뺏단다
삼월이라 삼짇날은 제비새끼가 뺏단다 / 사월이라 과일날은 불등놀이가 뺏단다
오월이라 단오일은 추천줄이 뺏단다⁴⁴⁾

정월 대보름날 액막이 연이 뺏네 떠 / 이월 한식날 수조구 대가리 뺏네 떠
삼월 삼짇날 연자 새끼가 뺏네 / 사월 초파일날 관등놀이 뺏네 떠
오월 단오날 춘향이 추천이 뺏네 떠 / 유월 유두 개떡 바꾸리 뺏네 떠
저렇게 동당실 / 높이만 뺏고나 예혜해야 해⁴⁵⁾

명년이라 정월달에는 놀이를 가자 // 좋네 좋네 허얼시구나 좀도 좋다 (후렴)
명년이라 이월달에는 한식놀이를 가자 // 좋네 좋네 허얼시구나 좀도 좋다
명년이라 삼월달에는 화전놀이를 가자 // 좋네 좋네 허얼시구나 좀도 좋다
명년이라 사월달에는 파전놀이를 가자 // 좋네 좋네 허얼시구나 좀도 좋다
명년이라 오월달에는 추천놀이를 가자 // 좋네 좋네 허얼시구나 좀도 좋다

위의 세시유희요는 각 명절의 이름을 제시해 놓고 그 뒤에 대표적인 세시 놀이나 세시풍속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은 세시의식요와도 흡사한데, 이 노래들은 주술적 기원이나 정서표현보다는 세시명절을 제시하고 그 뒤에 결부되는 세시 절일사를 같은 형식으로 반복하는 데서 생기는 언어유희성이 핵심이다. 세시 절일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나물, 떡, 범벅 등 일상생활의 소

43) 세시유희요는 주술적 기능과 함께 향유층 자신들의 정서적 기능을 통해 공동체가 교감하는 놀이노래로 볼 수 있다. 이창식, 위의 책, 62-63쪽.

44) 「방아타령」, 임동권, 『한국민요집』3권, 집문당, 1980, 433쪽.

45) 「신안 : 밤달애노래」(10-1), 『한국민요대전』(전라남도편 해설집), 1995, 262-363쪽.

재에서 자연스럽게 취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⁴⁶⁾

정월에 정경치고, 이월에 이 앓고, 삼월에 삼 서고, 사월에 삭신 앓고,
오월에 옷이 뜯고, 유월에 육신 앓고, 칠월에 치질 앓고, 팔월에 팔 앓고,
구월에 귀 앓고, 시월에 시들고, 동짓달에 동동 떠서, 선달에 서울 간다

위의 세시유희요는 세시명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언어유희에 초점이 맞춰진 노래이다. 열두 달의 이름은 오로지 언어유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구전 세시가요에서 세시절일과 사설의 상관관계를 다 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시 절일이 정서표현을 고양시키는 수단인 경우로, 주로 여인 입에 대한 정한을 표현하는 노래이다. 둘째는 세시명절 자체를 나열하면서 각 달마다 돌아오는 명절의 놀이와 풍속을 노래한 것들이다. 셋째는 세시명절의 이름이 오로지 언어유희를 위해 차용된 경우이다. 세시유희요에서 언급되는 명절은 세시의식요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節日詞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오는가에 따라서 주술적 기원, 또는 정서표현과 언어유희의 속성으로 나뉜다.

세시의식요의 주술성이 가창 시공간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발현된다면, 세시유희요의 놀이성은 가창의 소재와 표현을 기반으로 발현된다. 세시유희요는 달거리채 민요의 형식을 취하면서 말놀이의 요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구전 세시가요는 구조상 월별 세시 소재를 나열하고, 가창 민요의 특성상 여흥구나 첨가구를 삽입하고, 사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록 세시가요가 실질적 내용 위주인 점과 대비된다.

세시유희요의 놀이적 성격은 세시풍속과 민요의 구술 전통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다. 세시유희요 사설의 구성 원리는 열두 달이라는 시간적 틀과 세시 명절들에 대한 공유된 지식이 바탕을 이룬다. 오랜 세월 농경생활을 함께

46) 강동학, 「민요의 이해」,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289-293쪽. 그는 여기서 민요 사설의 기능을 실무, 표출, 놀이로 구분하였다. 세시의식요가 사설의 실무에 중점을 둔다면, 세시유희요는 표출과 놀이에 중점을 둔다.

해온 가창자 집단의 인식 속에 이러한 구성 원리가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세시유희요의 가창자들은 대개 농민들이고, 그들은 농경적 삶으로부터 획득한 순환적 시간관과 세계관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사설을 새롭게 짜고 변용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열두 달의 구조를 활용하는 가창자들의 능력은 농경적 체험과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⁷⁾

5. 농경문화의 시각에서 본 세시가요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열두 달을 구성의 기본 틀로 삼은 세시가요를 대상으로 삼아 그 의식적 지향성과 농경문화적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세시가요는 농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되고 전래되어 왔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기록문화와 구전문화, 상층문화와 민중문화에 따라서 그 의식적 지향성의 차이를 보인다. 세시가요의 두 주체는 세시의 시간적·문화적 의미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세시가요 속에서 구현해낸다. 기록 세시가요는 중농적 유교이념을, 구전 세시가요의 농경적 삶에서 생성된 관습을 지향한다. 농업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엘리트층은 기록의 권위와 이념적 지향성을 보이는 반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농업문화의 전승자인 농민은 삶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삶의 철학을 구축하고 그것을 다시 삶으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앞의 논의에서 얻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록 세시가요	구전 세시가요
사상적 바탕	유교적 중농이념	삶의 체험적 사유
표현의 기반	중국의 經典	자생적 口傳
우선적 세시	절기	명절
강조점	노동과 생산	휴식과 놀이
효과	失時의 경계	祈願과 표현

47) 최자운, 「달거리體 노래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22집, 동양고전학회, 2005, 117-121쪽.

농경문화는 정주생활을 향유하면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창조된 생활관습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순환적 시간관, 인간관계의 도덕론인 오륜, 우주자연관인 음양상생론과 천인합일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농경문화의 산물인 세시가요에는 농경문화에서 창조된 생활관습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지식인 지배계층의 시각과 농사의 주체인 피지배계층의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계층은 모두 순환적이고 주기적인 자연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노래에 반영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인다. 두 계층의 의식적 지향성은 지배층과 농민층이라는 주체의 차이, 기록문화와 구전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월령」에서 보이는 사상은 자연과 인간이 음양오행의 순환원리에 따름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인 天時를 파악하고, 인간은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天時는 낮과 밤, 계절, 추위와 더위 등 때에 따라 돌아가는 자연의 현상인데, 이에 순응하는 것은 군자의 의무이자, 또한 농사의 이치이다. 천시 중에서 농사와 관련된 시간은 하루의 밤낮처럼 짧은 시간은 아니라, '절기'가 기본이다. 절기를 중심으로, 절후, 열두 달 등의 시간 배열과 질서 속에서 농사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열두 달의 시간적 순환 속에서 '때(時)'를 놓치지 않는 것이 농사의 기본 원칙이고, 그것이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농사는 하늘의 이치를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국가운영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농사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월령」의 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월령」의 응천순시(應天順時) 정신은 「농가월령가」나 「농가월령」과 같은 세시가요에도 반영되었다. 기록 세시가요의 작자들은 중국 경전의 권위를 빌어, 지식인 지배층의 입장에서 조선 국가운영의 원리였던 유교적 중농이념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지배계층의 문학이 끊임없이 외래문화와의 교섭과 영향 관계를 주고받은 반면, 민중문화의 사유방식은 자생적 뿌리를 갖고 있다. 구전 세시가요는 농경적 삶의 체험적 사유와 가창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전승되어 왔다. 구전문화의 전통에서 나온 구전 세시가요의 사유방식은 절대 다수 민중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자생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기록의 권위 대신 구전의 전승성에 의존하고 있다.

지식인 작자층의 기록 세시가요에서는 節氣와 節侯를 우선시한다면, 민중층 세시가요는 名節 또는 節日이 우선이다. 이처럼 우선시하는 세시의 차이는 두 작자층의 경험과 의식의 지향성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지식인층의 지향성이 국가 운영의 중농적 이념을 확대하는 데 있다면, 민중층의 지향성은 농경적 삶의 경험에서 생성된 공동체의 주술적 기원과 표현욕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술지향성의 세시가요는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제의와 축제의 맥락에서 가창된다. 농경적 삶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민중층의 지식과 지혜를 낳았고, 이것은 민중층이 당대 삶에 순응하는 철학이 된다.

구전 세시가요는 節日을 중심으로 사설이 구성되며 세시의식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가창된다. 세시의식은 일년 열두 달 행해질 수 있지만 모든 세시의식에서 노래가 가창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이나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루어지던 마을굿은 구전 세시가요가 가창되는 핵심 시공간이다. 구전 세시가요에서 절기 대신 절일을 노래의 핵심 소재로 삼는 까닭은 농경적 생활 관습에서 형성된 제의적 기원과 놀이 풍속이 절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농사일은 노동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진다. 세시는 노동의 시간지표일 뿐만 아니라, 휴식과 놀이의 시간지표이기도 하다. 기록 세시가요는 노동의 기준으로서 절기를 강조하여 노동에 중심을 두고 있고 여기에 휴식과 명절을 보완한다면, 구전 세시가요는 절기 명절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절일은 농경문화에서 노동을 쉬고 해방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절일에는 대부분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일상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하고, 그 사이에 절일이 배치되어 절일에는 일상적 노동을 쉬고 노동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세시절일의 놀이와 세시풍속은 농경생활에 리듬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때에 맞추어 일하고 그 가운데 자연의 리듬에 따라 휴식과 놀이를 취하는 것은 기록 세시가요와 구전 세시가요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 세시가요가 노동의 당위성을 초점을 둔다면, 구전 세시가요는 일하는 것 못지않게 휴식과 놀이가 농경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체험을 통해 일깨운다.

〈참고문헌〉

1.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2005.
김익두 외,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편 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5.
김지용·김미란 공저, 『農家月令歌와 月餘農歌 詩』, 명문당, 2008.
백대웅 외, 『한국민요대전』(경기도편 민요해설집), 1996.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2권·5권, 아세아문화사, 2005.
임동권, 『한국민요집』 3권, 집문당, 1980.
조경만 외, 『한국민요대전』(전라남도편 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대계』8-1(경남 거제군편), 1980.

2. 논저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구자옥·김영진, 「우리나라 농사일(農務, 農耕) 문화의 성립·변천 및 사례 - 농사일의 전개」, 『농업사연구』제7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8.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김석희,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月餘農歌)〉의 대비 고찰」, 『국어국문학』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김익두 외, 『풍물굿 연구』, 지식산업사, 2009.
김형태, 「〈農家月令歌〉 창작 배경 연구 - 歲時記 및 農書, 家學, 『詩名多識』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제25집, 동양고전학회, 2006.
박경수,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박준규, 『韓國 歲時歌謠의 研究』, 전북대 박사논문, 1983.
이승원, 「〈농가월령가〉에 나타난 자연·인간·사회」, 『국어국문학』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이창식, 『韓國의 遊戲民謠』, 집문당, 1999.
임기중, 「달거리와 月令體歌 장르 判定에 대한 異議」,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7.

- 임기중, 『한국고전문학과 세계인식』, 역락, 2003.
- 임재해, 「곳의 주수설과 변혁성」, 『비교민속학』제9집, 비교민속학회, 1992.
- 장정룡,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 집문당, 1988.
- 주영하, 「19세기 세시 풍속에 대한 지식인의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2005.
- 최남선 지음, 최상진 해제, 『조선의 상식』, 두리미디어, 2007.
- 최자운, 「달거리體 노래 연구」, 『동양고전연구』제22집, 동양고전학회, 2005.
- 한정수, 『한국 중세 유교정치사상과 농업』, 혜안, 2007.
- 허재영,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역락, 2000.
- 샤오팡 지음, 김지연·박미경·전인경 역,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 국립민속박물관, 2006.
-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국문초록】

歲時歌謠는 열두 달을 구성의 기본적인 틀로 삼고, 각 달의 세시를 핵심 소재로 삼은 노래이다. 지금까지 세시가요 연구의 주요 관심은 형식의 구조적 특징, 계통, 주제 등이었다. 세시의 형성과 계승은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시가요 역시 농경문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시가요의 창작과 전승이 근본적으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농경문화의 시각에서 세시가요의 의식적 지향성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세시가요 작자층의 성격과 그들의 경험에 따라 강조하는 세시의 마디가 다르고, 그것을 강조하는 목적과 지향점도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드러난 의식적 경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식인 작자층의 지향성이 중국의 유교경전의 영향을 받아 국가 운영의 중농적 이념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다면, 민중층의 지향성은 농경적 삶의 경험에서 생성된 공동체의 주술적 기원과 놀이 욕구 등 농경적 관습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두 작자 계층의 지향성과 사유방식은 각각 기록문화와 구전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전파되었다.

세시가요에서 節氣나 名節 등 세시의 특정한 때는 농경문화의 순환론적 시간관을 반영하며, 작품의 의미를 낳는 중요한 소재로 쓰였다. 기록 세시가요는 農事曆 기능을 하는 ‘절기’를 중시함으로써 지배층의 유교적 중농이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면, 구전 세시가요는 축제와 놀이가 행해지는 ‘명절’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의 긴장 해소 및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민중층의 의식을 드러낸다.

주제어 : 세시가요, 지향성, 농경문화, 기록, 구전, 세시, 절기, 명절

【Abstracts】

Meaning in Seasonal Songs from an Agricultural Perspective

Kim, Wol-duk

Korean seasonal songs are constructed with a twelve part framework corresponding to the twelve months of the year and based on the seasonal customs for each month. Times and seasons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songs. Researchers have been concerned mostly with structural characteristics, differences in origins and types, and main ideas. This article has written on the assumption that the creation and spread of seasonal songs is primarily based on agricultural cultur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emonstrate the directions and meanings from an agricultural perspective.

Wha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songs are and when the important season and time are in the songs depends on the writers and singers' class background and their experiences. The songs written by the learned are aimed at expanding knowledge and reproducing the national ideology of physiocracy (which means a doctrine in which farmers are regarded as essential parts of the country's wealth)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teachings from China. On the other hand, the songs that were sung by the people were created out of a need to express themselves and pray related to their daily agricultural life experiences. The two purposes and ideas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generations based on literacy in the case of the scholars' songs or orality in the case of the peasants' songs.

The twenty-four solar terms and festive days are related to the most important time in the seasonal songs because they are the materials that produce the meaning and demonstrate the circular conception of time based on the agriculture cycle. Seasonal songs written by the learned express a sense of physiocracy by focusing on the twenty-four solar terms that play a role in the farming calendar. Seasonal songs sung by the people express the people's popular consciousness in pursuit of the harmony of work and rest by focusing on festive days.

keywords : seasonal songs, agricultural culture, twenty-four solar terms, festive days, physiocracy

이 논문은 2009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